##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6년 제6차 지역분과 회의자료(6월)

### - 토론회 평가회 -

구 분	내 용
협의체 사회적 비전 & 미션	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/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지역분과 목표	참여와 협치로 지역복지공동체를 실천하는 지역분과

○ 일 시: 2016. 6. 16.(목) 11:00

○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

○ 주요내용

"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 평가"

#### □ 토론회 개요

#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

○ 일 시 : 2016. 6. 10.(금) 14:00 ~ 16:00

○ 장 소 : 수원시청 중회의실(별관 2층)

○ 참석대상 : 수원시민, 사회복지 민 • 관 관계자 등 100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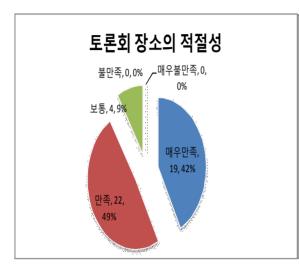
○ 주 관: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,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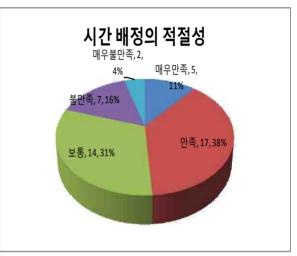
○ 시간계획

시간		소요	1110		ш ¬		
부터	까지	(분)	내용	비고			
13:30	14:00	30	■ 접수 등록				
14:00	14:05	05	• 개 회	김 (협의체	명 전 지역분과장		
14:05	14:10	05	■ 인 사 말 씀 -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-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- 수원시 복지여성국장	박 박 김	진 호 일 <i>구</i> 창 범	7	
14:10	14:25	15	■ 주제발표 1 -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성과분석 및 추진 과제	심 ( 사 회	정 0 복 지 과 장		
14:25	14:45	15	■ 주제발표 2 -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 제언	한 ( 수 원 시	연 주   정 연 구 원		
14:45	14:50	05	■ 좌장 소개 및 토론자리 세팅				
14:50	15:40	50 (객0분)	■ 지정토론  - 김종해 (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  - 이상남 (비전업청소년학교지역아동센터장)  - 황재경 (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)  - 오동석 (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)  - 노영관 (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)	송 ( 사 권 익 분	원 친 협 호 과 위원장		
14:40	16:00	20	■ 질의응답	발 표 자	및 토론지	} }	
16:00	_	_	■ 폐 회 및 정 리	사	회 자	다 -	

#### □ 토론회 진행결과

- 참석인원 : 157명(133명, 공무원 24명)
- 설문조사 결과 (응답자 45명)
  - 1. 환경 및 진행 만족도
    - 1) 토론회 장소 적절성
- 2) 시간배정의 적절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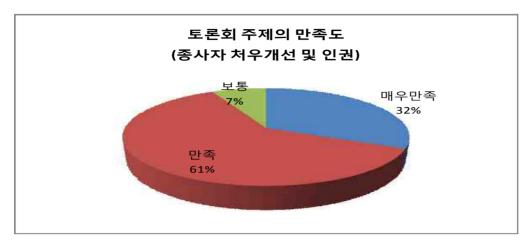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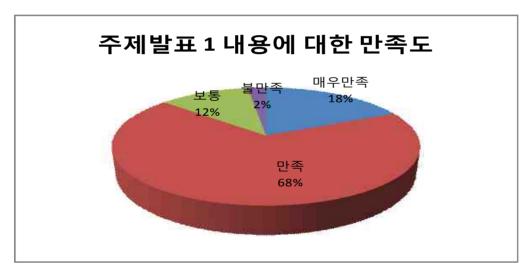
- ※장소 및 시간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 주시면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.
- 토론자 시간배분 아쉬움
- 플로어에서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
- 점심 바로 이후는 졸음이 찾아와 잠깐힘들었음
- 패널 발표시간 배분문제
- 휴식시간이 있었으면
- 토론주제가 명확하고 사전토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배정(토론발표자)이 충분히 협의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
- 근무시간 중간이라 어쩡정함 10시 부터나 4시부터가 좋겠음
-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
- 시간이 길었음
-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목소리는 따로 만나서하는 것이 필요함

#### 2. 토론회 내용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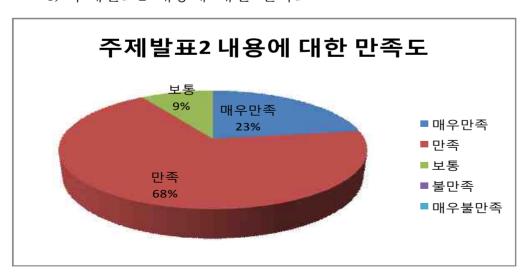
1) 토론회 주제 만족도(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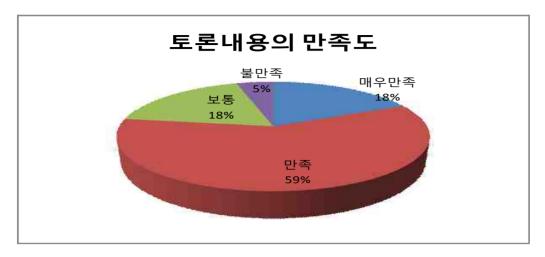
2) 주제발표1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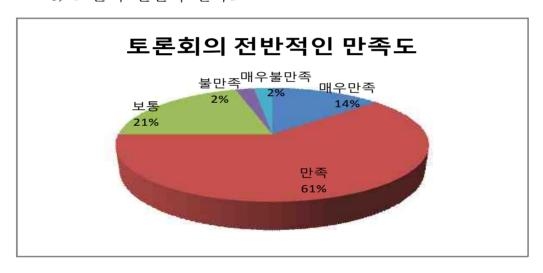
3) 주제발표2 내용에 대한 만족도



#### 4) 토론내용의 만족도



#### 5) 토론회 전반적 만족도



- ※ 토론회 내용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다음에는 더 알 차게 준비하겠습니다.
  - 계획 추진자체가 형평성이 없어 보임
  - 중복된 문제 제시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액션이 없음 토론자가 너무 많음
-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요
  - 시간배정으로 시간을 넘김
  - 토론의 핵심이 모호하다. 너무 많은 발표자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요식행 위에 치우쳤다. 시간약속을 지킵시다.
  - 가장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 아닐까 요?

- ※ 수원시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및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있으면 적어주세요.
  -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문제 같은 호봉의 대체인력이 아닌 계약직 적은 기본 급여문제, 결국서무로 활용, 본 사업은 다른 직원이 나누어서 하게되는 구조. 육아휴직 시 죄짓고 들어가는 듯함
  - 조직문화 갑질개선 필요 공무원의 권위적인 강압적인 언어사용, 추진 등
  - 소규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연구(조사포함) 필요
  - 이용시설위주의 연구 방향제시여서 앞으로는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 지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  - 토론회 주제가 종사자처우개선만큼 실무자 중심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더 적절한 듯으로 보임
  -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음(이용자를 대하는 실무자가 인권피해를 당하거나 자신도모르게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사례를 근거 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  - 만족한다.
  - 처우개선과 동시에 복지이슈(아젠다)를 이끌어 가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준비해 주십시오.
  - 제도적 차원 문제 중에 관과 민의 관계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가 앞으로 필요함
  - 종교적 인권문제는 위탁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잇으면 개선되어 것으로 보인다.
  - 처우개선=경제적 지원에 국한한 토론보다는 이용자로 부터의 폭언, 스트 레스에 대한 인권, 처우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다루어주셨으면
  -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급여를 하루, 복지를 하루, 환경을 하루, 정책으로하루 이렇게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
  - 집중력이 현저히 낮음

□ 지역분과 토론회 평가의견